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년 4월 13일 개소하여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지원 활동, 성폭력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의 정착과 여성의 인권회복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도보 5분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 도보 10분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도보 10분
- 버스
600번, 607번, 1002번, 8600번
시청 앞 덕수궁 하차



전 시 2011.12.01 목요일 - 06 화요일 am10:00 - pm7:00
말하기 2011.12.03 토요일 pm4:00 12.06 화요일 pm7:00
장 소 공간 (말하기 행사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 참고 / 선착순 각 40명)
<http://sisters.or.kr/speakout> 02.338.2890-1 speak_out@naver.com
주 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전 시 2011.12.01 목요일 - 06 화요일 am10:00 - pm7:00
말하기 2011.12.03 토요일 pm4:00 12.06 화요일 pm7:00



[정동갤러리] (광화문역 6번 출구) 주 최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isters.or.kr/speakout> 02.338.2890-1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성폭력, 미술로 말하기

루나 • 숨su:m • 숲 • 우유니 • 이안 • 진진



“ 생존자의 경험과 힘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도전해 온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올해는 6인의 시각예술작품을 통해
성폭력/피해를 둘러싼 ‘이미지’와 질문에 공개답변합니다. ”

Q. ‘생존자’는 무슨 뜻인가요?

성폭력 ‘생존자(survivor)’는 고통과 좌절,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라는 말에 갇히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며 삶을 일구어 나
가는 적극적인 주체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Q. ‘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란 무엇인가요?

2003년 시작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생존자의 경험을 많은
사람과 나눔으로써 생존자의 경험과 힘을 되살리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시도입니다. 말,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생존자’의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Q. 미술로 ‘말한다’고요?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성폭력은, 사건사고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라고 하면 대부
분 상처와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이거나, 치유를 통해 ‘보통
사람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모습이 많이 익
숙하게 느껴집니다.

〈공개답변〉에서는 사례나 대상으로서의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존자 6인의 경험과 ‘말하기’를
담은 시각예술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작품들은 성폭력 피해자라는 ‘이미지’에서 뛰쳐나온 생존자
들의 비언어적인 ‘말하기’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해대는 세상 앞에 용기 있게 던지는
공개답변입니다.

Q. 어떻게 참여하나요?

〈공개답변〉은 시각예술전시인만큼, 작품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마음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합니다. 생존자의 ‘말하기’와 맞닿은
나의 경험과 감정을 떠올리고,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자의 ‘말하기’에 대한 ‘듣기’이자 올해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
회를 통해 생존자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개답변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관객
일지도 모릅니다. 성폭력 생존자의 말하기가 세상을 설득하는 것
이 아니라, 말하기를 들어야 하는 세상이 경청하고 공감하고, 변화
해야 하니까요.

세상의 변화가 여기저기서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성폭력의 경험
또한 삶의 많은 경험 중 하나로 스며들어 일상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자, 여기 생존자들은 자신의 말을 풀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